

2020 EU R&I Days 주요 세션별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연구혁신총국)는 매년 유럽연합의 연구혁신 정책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9월 22일~24일,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
- 한-EU연구혁신센터(KERC)에서는 주요 세션별로 등록,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모니터링한 바,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함
 - Plenary(1p.) / Policy(4p.) / DIGITALISATION(7p.) / HORIZON EUROPE(9p.) / HORIZON EUROPE MISSIONS(12p.) / SMART IMPLEMENTATION & SYNERGIES(14p.) / INTERNATIONAL COOPERATION(20p.) / EUROPEAN RESEARCH COUNCIL(23p.)

I

Plenary

SYNERGIES EUROPEAN EDUCATION AREA / EUROPEAN RESEARCH AREA: TOWARDS A KNOWLEDGE STRATEGY (09.24. 14:00~14:45)

□ 발표자

- 사회자) Gareth O' NEILL(Open Science 자문단, 기술정책그룹)
- 발표자 1) Maria GABRIELLE(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담당 집행위원)
- 발표자 2) Hrvoje MESTRIC(크로아티아 과학교육부 연구시스템개발 담당)
- 발표자 3) Maria Da Graca Carvalho(EU의회 연구위원회(ITRE) 의원)
- 발표자 4) Jean Marc OGIER(유럽의회 연구위원회(ITRE) 의원/ 라호셀 대학 학장)

□ 주요 내용

○ EEA(European Education Area)와 ERA(European Research Area)의 시너지 효과

- 유럽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함. 균형 있는 발전은 경제 영역 뿐만이 아니라 연구/교육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유럽의 성장은 민주, 관용, 평등 등의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 EEA와 ERA는 유럽 내 젊은 인재들의 교류를 촉진하여 전 유럽의 균형 있는 교육 및 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유럽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연구 및 혁신 분야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며, EIT(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유럽혁신기술연구소)와 같은 유럽 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함.
- Horizon 2020 내 European University initiative 시범과제 시행을 통해 EEA와 ERA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1년 반가량이 지난 현재 유럽 차원의 지식 협력 확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유럽 대학 간 협력에 기반한 통합학위 개설, 유럽 대학이 배출한 인재 고용 활성화,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이 필요함.
- European University initiative를 통해 EU 차원의 협력 가능성 및 방향 등을 평가하고, EEA와 ER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함.

○ Zagreb call for Action on brain Circulation 2020¹⁾를 통한 시너지 창출

- Zagreb call for Action on brain Circulation 2020은 어떻게 인력교류가 자유로운 유럽 연구 분야의 단일시장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계획은 인재양성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성, 회원국 참여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 및 구체적 지침 등을 정책 및 시행의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음.
- 유럽 각국은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인재들이 유럽의 특정 몇몇 나라들로 밀집되는 등 활용 측면에서 회원국 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짐. 유럽 회원국들의 균형 잡힌 인재활용을 통해 상대적 약소국들의 교육/연구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유럽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임.

1) 2019년 6월 개최된 ‘MSCA 2020.HR: 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 Impact and Future Challenges’에서 개최국 크로아시아가 균형있는 인재교류를 위한 MSCA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2020년 EU이사회 의장국인 크로아시아의 교육과학부는 2020 인력교류 활성화 계획 ‘Zagreb call for Action on brain Circulation 2020 initiative’을 발표함.

○ COVID19 이후 시대에 교육/연구분야의 공동 과제

-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들은 COVID19 이전에도 학제간 통합, 열린 지식, 문화 통합 등의 과제를 직면하고 있었음.
-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소들은 발전된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계의 교육/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을 확장해야 함.
- COVID19 이후에도 교육/연구기관들은 개방성, 협력, 학제간 통합, 사회통합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함.
- 90%의 대학들이 European University initiative가 더 일찍 구상되었다면 COVID-19 등 현재 사회가 당면한 과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함. 또한 60%의 대학들이 다른 대학 및 연구소, 공공/민간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고 있음.
- 교육/연구기관은 사회가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하며, 그것이 교육/연구 분야의 공동 과제임.

○ European University Alliance의 미래와 교육 및 연구 분야 시너지 창출

- European University Alliance는 대학이 사회과제 해결에 참여할 좋은 기회를 제공함.
- 대부분 연구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다루지지만, 교육은 지역적/국가적 관점에서 논의됨. European University Alliance 활동의 강화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도 EU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EU 공동학위 개설 등을 통한 EU 내의 학제 통합 등이 필요함.

II

HUB 1 : POLICY

THE FUTURE OF UNIVERSITIES IN EUROPE: SUPPORTING INSTITUTIONAL TRANSFORMATIONS AND THE EUROPEAN UNIVERSITY INITIATIVE (09.23. 10:30~11:15)

□ 발표자

- 사회자) Jan PALMOWSKI (유럽대학협회 사무국장)
- 발표자 1) Jean-Eric PAQUET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총국장)
- 발표자 2) Themis CHRISTOPHIDOU (EU집행위원회 교육문화총국 총국장)
- 발표자 3) Michael MURPHY (유럽대학협회 회장)
- 발표자 4) Silvie RETAILLEAU (파리 사크레이 대학 학장)
- 발표자 5) Peter GREISLER (독일 교육연구부 고등교육담당관)

□ 주요 내용

○ 유럽 대학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

- 현재 유럽의 대학은 다양성과 협력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임.
- 다양한 방식의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과제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유럽만의 방식을 확립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유럽 대학들이 추구하는 가치(자율성, 근거기반 토론, 도전, 글로벌 진출 등)가 EU 및 각 회원국과 공유되어 교육, 연구, 사회 공헌 등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연구, 교육, 혁신, 사회발전 분야에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경제 및 사회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 글로벌 과제 등을 반영한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함.
-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대학의 협력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되어야 함. 동시에 대학은 각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역의 정책을 반영해야 함.

○ **대학 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방법**

- 대학 외 기관과 공동 가치(글로벌 과제, 사회적 이슈 등) 공유 등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함.
- EU집행위원회는 European University Initiative의 일환으로 European University alliance 구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이 대학 간 네트워크가 대학 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European Education Area 구성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함께 발전하는 유럽 (leaving no one behind)**

- 함께 발전하는 유럽 대학을 위해서는 인재의 재분배가 필요함.
- 인재 유치를 위해서 대학들은 각자의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집중지원 분야 등을 개발하여 해당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반시설 마련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대학의 자율성**

-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우수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임.
-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라 권리, 발견된 사실을 공개할 권리를 가지므로 유럽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 European University Alliances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대학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More investment better policies, stronger COOPERATION (09.22 12:45~13:30)

□ **발표자**

- 발표자 1) Mario NAVA (EU집행위원회 구조개혁총국 총국장)
- 발표자 2) Normunds POGEN (EU집행위원회 지역도시정책국 부총국장)
- 발표자 3) Jean-Eric PAQUET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총국장)
- 발표자 4) Dragos CIUPARU (루마니아 교육연구부 수석비서관)
- 발표자 5) Grzegorz WROCHNA (폴란드 고등교육부 국무차관)

□ **주요 내용**

○ **개혁의 대상과 추진 방법**

- 회원국들의 연구혁신을 위한 국가정책 체계가 서로 상이하고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존재함.

- 사이언스와 비즈니스의 균형적인 지원(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중요함.
- 회원국들의 수요에 기초하여 DG 간 협력, 개별 프로그램 간 협력, 결속기금 (Cohesion Fund)과 과학 프로그램의 연계 추진이 필요함.

○ 회원국 지역 간 균형 발전 필요

- 연구혁신활동을 기준으로 볼 때 유럽 내 지역 간 불균등이 존재함.
- 연구혁신을 포함한 결속정책과 다른 지원수단과의 연계, 상향식의 스마트 인프라 전략 제시,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지역 참여 확대, 지역당국이 포함되는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필요함.

○ 연구혁신에서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

- 회원국들의 지역에 대한 민간과 공공 투자 확대를 견인함으로써 연구혁신 이행을 통한 결과와 영향이 정책 결정과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
- 투자와 개혁 이슈는 개별국가와 유럽의 지원수단이 결합(연구혁신 정책 공동설계 등) 되어야 함.

○ 루마니아 사례

- 집행위와 루마니아 교육연구부와의 정책 대화를 통해 연구개발시스템 개선과 연구 인프라 및 우수연구자 순환에 기여함.
- RRF(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를 통한 개혁과 투자계획 조연 및 PSF(Policy Support Facility)를 통한 ERA 연계 강화, 방향성, 포용성 달성이 기대됨.

○ 폴란드 사례

- 유럽연합 PSF(Policy Support Facility)가 개혁정책 설계에 기여하였고, SRSP(Structural Reform Support Programme)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의 지식이전 전략을 수행하는 등 타 국가 사례 소개.
- 지원수단은 간결하면서 혜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각 나라의 맥락에 맞도록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폴란드 정부 권고사항).

III

HUB 3 : DIGITALISATION

Mitigating gender & ethnicity BIASES IN AI (09.22. 14:00 – 14:45)

□ 발표자

- 발표자 1) Alice Bah KUHNKE (EU의회 의원)
- 발표자 2) Roger A. SORRA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원)
- 발표자 3) Meredith WHITTAKER (뉴욕대학교 AI Now Institute 소장)
- 발표자 4) Catelijne MULLER (ALLAI대표, EU High level expert group)

□ 주요 내용

○ AI 및 Robotics 기술발전

- IoT, 빅데이터 기술, 컴퓨팅 성능향상 등으로 AI와 로봇기술의 활용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 효율화 및 경제적 효익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됨.
-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응용에 있어 성적/인종적/소수자 등의 기존의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차별화의 문제 점검이 필요함.

○ AI 신기술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사례조사 결과

- 기술개발은 단지 기술만의 문제를 넘어 공정성(fairness)의 문제와 연계됨.
- AI의 중립성에 의문: 안면인식기술, 기계언어 학습기술 등에서 이미 성적/인종적 차별화가 심각히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AI기술을 선도적으로 응용하고 개발하는 기업/개발자가 가진 기존의 편견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반영되고, 기계학습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개발자 그룹은 대부분 백인/남성이 위주를 이루고 있어 여성/유색인종이 개발자 그룹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고 이로 인한 성적/인종적 편견이 그대로 기술에 반영되고 있음.
- ‘innovation’ 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가 오용되거나, 기존의 성적/인종적 차별이 더욱 확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음.

○ 정책 방향

- ‘AI기술로부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기술개발에 있어 “value based approach” 를 견지해야 하며,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치에 기반한 밸런스를 찾아가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AI기술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 차별 등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함.
- EU 차원에서는 “Ethics Guideline for Trustworthy AI” 제정하여 AI윤리 문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 학계(전문가그룹)-정책당국의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더욱 긴밀히 요구됨.

IV

HUB 4 : HORIZON EUROPE

New opportunities on the Horizon (09.22. 12:45-13:30)

□ 발표자

- 발표자 1) Sabin KLOK (네덜란드 경제기후부 유럽혁신정책담당)
- 발표자 2) Lowri EVANS (수자원 보호 Mission Board 위원)
- 발표자 3) Marx GERNOT (아헨 대학병원 마취학과 교수)
- 발표자 4) Philippe MENGAL (바이오기반산업연합(BBI JU) 대표)

□ 주요 내용

○ 배경 및 목적

- 시너지 정책은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한 많은 우수 과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임.
- 고위 정책결정자 그룹 내에서 시너지 정책은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임.
- 향후 시너지 정책의 목표는 연구 프로젝트 간의 시너지 생성을 넘어서서 각국의 공통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프로그램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임.

○ 시너지 유형

- 사회적 과제 해결(Missions)
 - HORIZON EUROPE 내 5개의 미션 분야가 있음(암 치료, 기후변화대응, 해양 수자원 보호, 기후중립 및 스마트 시티, 토양 생태계 및 식량).
 - 해양 수자원 분야 미션 이사회 (Mission Board Healthy Oceans, Seas, Coastal and Inland Waters)는 미션 스타피쉬2030(Mission Starfish 2030)을 제안함. 2021-2027 기간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EU 및 각국(공공/민간)으로부터 약 5천억 유로의 예산을 확보해야 함.
- 파트너십 (Partnership)
 - 바이오기반산업연합(BBI JU(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은 37억 유로 규모의 EU-바이오 산업 컨소시엄 간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서 지금까지 37개 EU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123개 바이오 분야 프로젝트들을 지원하였음.

- 혁신연구지원
 - 네덜란드 경제기후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of The Netherlands)의 유럽혁신정책팀(Team European Innovation Policy)은 네덜란드 국내 연구혁신 프로그램들과 EU 및 지역 차원의 연구혁신 프로그램들 사이의 접점을 찾아 연결(link)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있음.
 - 아헨 원격의료센터(Aachen Telemedicine Centre)의 혁신연구프로젝트들의 연구비 총 117.4 백만 유로이며, 이 중 6백90만 유로는 지역기금(ERDF), 8천만 유로는 국내 연구지원프로그램, 3천50만 유로는 EU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연구비로 구성됨.

How can R&I help to protect, prepare and transform Europe in a POST-COVID world? (09.23. 10:30-11:15)

□ 발표자

- 발표자 1) Kirsten DUNLOP (유럽공과대학(EIT) Climate-KIC CEO)
- 발표자 2) Céline CHARVERIAT (유럽환경정책연구소(IEEP) 소장)
- 발표자 3) Pierre-Alexandre BALLAND (위트레흐트대학교 경제지리학과 연구교수)
- 발표자 4) Andrea RENDA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GRID(Global Governance, Regulation, Innovation and the Digital Economy) 대표)

□ 주요 내용

○ 새로운 혁신 거버넌스의 필요성

- COVID-19 사태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는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도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는 연구개발혁신 없이는 불가능함.
- 사회가 위기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갖는다는 것은 곧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혁신은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우수 연구 탐색, 연구개발, 연구결과 적용을 위한 즉각적이고 다발적인 피드백 시스템에 기초한 거버넌스가 필요함.

○ 전환적 혁신(Transformative Innovation)을 위한 시민 참여

- 혁신 수요 파악을 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의 정책 어젠다 형성이 필요함.
- 혁신기술 적용 단계에서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시민 참여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음.

○ **지속적인 혁신 추구**

- 산업계는 경제 상황에 따라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큼.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HORIZON EUROPE과 같은 EU차원의 프로그램들은 혁신기술 개발의 안전장치가 됨.

○ **전환적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재정 위기 이후에 산업계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과 같은 공동의 과제 해결이라는 가치 추구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임.
-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혁신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이니셔티브, 거버넌스가 필요함.

○ **디지털 경제와 기술경쟁**

- 디지털 경제는 승자독식체제가 형성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함.
- 기술 분산(decentralization)을 통해 지역 간 기술격차 심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병행될 수 있음.

V

HUB 5 : HORIZON EUROPE MISSIONS

CITIZENS ENGAGEMENT (09.22. 12:30-13:30)

□ 발표자

- 발표자 1) Maria DA GRAÇA CARVALHO (유럽의회의원(포르투갈))
- 발표자 2) Signe RATSO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
- 발표자 3) Anthony ZACHARZEWSKI (Democratic Society 설립자, 사장)
- 발표자 4) Pascal LAMY (H.E 건강한 해양 및 수자원 mission 위원회 의장)
- 발표자 5) Mariya GABRIEL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담당 집행위원)
- 발표자 6) Dubravka VP ŠUICA (EU집행위원회 민주주의와 인구변화 분야 부의위원장)

□ 주요 내용

○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

- Horizon Europe 내 Missions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과제 해결을 위해 5개의 핵심 영역을 설정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유럽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
 - ※ EU Horizon Europe Missions: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암 극복, 토질, 해양 및 수자원 보호
- 시민들의 아이디어, 비전을 수렴하여 Mission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은 EU의 공동설계(Co-design)및 공동 가치 창출(Co-creation)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임.
- 각각의 Mission 위원회는 이미 광범위한 부문의 개별시민과 시민단체를 만나 아이디어, 비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제안서에 반영하였음.

○ EU 정책개선: 심의민주주의 추구 및 인구변화의 영향

- EU는 최초로 심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혁신도구(Innovation tool)²⁾를 통하여 시민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더욱 건강한 유럽을 재건하고자 함.
- 기후변화극복과 디지털화는 EU의 최우선 과제이고 인구변화는 이를 실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EU는 인구변화가 주는 영향을 최초로 정책 수립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킴.

2) 혁신도구는 Confereece on the Europe을 의미하며 향후 유럽의 미래를 위한 광범위한 토론에 시민 참여 고취 및 의견반영

- EU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아래 두 가지 자료를 발간하여 2021년부터 적용 예정임.
 - Report on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경제성장, 노동시장, 고령화로 인한 장기 돌봄, 공공재정 등
 - 고령화에 대한 녹서: 녹서 발간과 함께 long-term vision for rural area initiativ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골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 연결성, 경제개발, 서비스 접근제한 등에 대산 공공협의 진행 중(11월 까지)

○ 시민참여 행사 프로그램 예시 및 향후 영향

- 해양 및 수자원 보호 Mission은 해양, 바다, 강 등 해양보호를 위하여 발틱, 노르딕,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 걸쳐 전문가들과 NGO,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음.
- 여러 행사의 결과를 접목하여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불가사리 프로젝트’를 수행. 어린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양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히고 자연 보호의식을 고취하였음.
-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임. 동 요소는 Horizon Europe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EU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 결론

-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정부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음. EU는 Missions 프로그램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유럽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증진할 예정임.
- 시민참여는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설계-실행 및 모니터링의 전단계에 걸쳐 상호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EU 정책의 공동설계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실천하려는 EU의 도전목표이고 이는 Missions을 통하여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역할, 시민 공통의 문제 해결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임. 이는 연구혁신 정책 뿐 아니라 EU의 모든 정책에 적용됨.
- EU의 최종목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시민 개개인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 시민참여가 EU의 missions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12월 발행되는 집행위 communication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임.

Qua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Horizon Europe proposal evaluation (09.22. 17:00~18:00)
□ 발표자

- 발표자 1) Jean-Eric PAQUET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총국장)
- 발표자 2) Marc TACHELET (EU집행위원회 Research Executive Agency 국장)
- 발표자 3) Heidi PAJU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연구정책과 수석전문가)
- 발표자 4) Mathilde REUMAUX (Science Europe 수석정책연구원)
- 발표자 5) Alan CROSS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공동비즈니스 부팀장)
- 발표자 6) Isabelle VERGARA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공동비즈니스 담당관)

□ 주요 내용
○ Horizon Europe 평가 시스템

- Horizon 2020 중간평가를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절차 및 항목은 투명성, 공정성, 연속성 등 많은 면에서 세계적 시스템으로 인정받았음.
- 이에 Horizon Europe의 평가시스템은 현재 진행 중인 H2020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다 동등한 대우 및 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아래 신규항목을 추가할 계획에 있음. (새로운 시스템은 주로 Horizon Europe의 Missions 및 EIC(European Innovation Council) 프로그램에 적용 될 예정임)

① 블라인드(anonym) 테스트

- 신청자의 정보를 평가 전문가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2단계 평가 중 프로젝트의 개요평가를 위주로 하는 1단계 평가에만 적용됨.
- 이는 신청자의 성별, 연령, 출신국가 및 지역, 경력, 배경 등 기본정보에 의한 편견을 없애고 제안서의 품질(Quality)을 평가의 최우선 항목으로 고려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나타냄.

② 지원자와 평가자 간 상호작용

- 평가 중간에 지원자에게 interview 기회를 부여,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고 평가위원들은 고품질의 피드백을 제공함.
- 평가에서 선정에 이르는 일정을 고려하여 이 단계는 최장 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함.

③ 포트폴리오 접근법

- 제안서와 더불어 고위험 혁신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하여 안전성 및 프로그램 기여도 점검함.
- 2단계 평가에만 적용, 이 평가방식은 이미 EIC Pilot 프로젝트에 적용된 바 있음.

○ 과제 평가 외부전문가 현황(Expert)

- H2020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도 제안서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그룹에 의하여 시행됨.
- 외부전문가의 선정과 구성은 EU 집행위(연구혁신총국) 내 연구집행국(Research Executive Agency, REA)에서 담당함.
- 매년 18,000명의 전문가가 REA와 평가를 위한 계약을 맺고 있음. 현재까지 Data base에 등록된 전문가는 총 230,000명으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함.
- 지식의 전문성과 경험은 외부전문가 선정의 우선 요소로 EU회원국, 준회원국 뿐 아니라 제3국의 인재 또한 지원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실력있는 전문가 확보는 매우 중요함. 특히 신규분야의 전문가 확보가 시급함. REA는 성별, 지역, 출신국등의 균형과 조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문가 혜택
 -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전반현황과 방향성, 연구자금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문지식 향상 및 최신지식 함양, 경험의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전문가 사례비 등을 개선할 수 있음.

○ 결론

- 추가적인 평가항목과 절차는 설문조사 및 공개 자문 단계를 거쳤으며 향후 EU 집행위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 외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임.
- 제시된 평가시스템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블라인드 테스트의 도입은 제안서의 본질적인 품질 선정과 관련성이 적고 신청자의 연구역량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원자와 평가자 간 상호교감을 위한 interview 프로세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interview 단계 추가로 인한 소모적인 측면(일정,비용 등) 발생에 대한 해결책 도입이 시급함.
- 전문가 활용의 도전과제

- 문화, 지역, 국가, 전문분야의 우선순위 등이 다른 전문가들의 공통 접근 및 공통의견 조율 및 협의가 필요함.
- 신기술 및 지식을 함양한 새로운 전문가 확보가 필요함.
- 원격심사 증대
 - COVID-19으로 인하여 원격심사가 증대하였고 이는 2단계 consensus 평가에 영향을 끼쳤음.
 - COVID-19의 장기화로 향후 원격심사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고 이 경우 EU역외의 전문가 참여 또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SIMPLIFICATION IN IMPLEMENTATION OF THE NEW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THE ROLE OF HORIZON EUROPE (09.22. 14:00~14:45)

□ 발표자

- 사회자) Anna PANAGOPOULOU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JRC 국장)
- 발표자 1) Wilfried KRAUS (독일 교육연구부 EU협력담당관)
- 발표자 2) Olivier WAELBROECK (EU집행위원회 예산총국 재정지원담당관)
- 발표자 3) Antonino ROTOLO(볼로냐 대학 법학과 교수/볼로냐대학 연구센터 부소장)

□ 주요 내용

○ 정책결정자에게 있어 절차의 중요성

- EU R&D 프로그램의 절차 및 규정 간소화는 EU 및 EU회원국이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협력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정책을 구상하고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
- 또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통해 EU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시너지가 강화되면, EU R&D 프로그램의 가치 및 필요성 등이 제고될 수 있음.

○ Horizon Europe의 절차 간소화 및 시너지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

- EU집행위원회는 재정 관련 일반 규정의 간소화하였음.
- 아울러, EU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양식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음.
- 특정 정책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표준협약서를 완성하였음.

○ Horizon2020의 절차 간소화의 영향

- H2020에서 개선된 규정 및 양식의 통일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 등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준비 비용 절감 및 연구 성과 활용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됨.

- 국제협력과제의 경우, 기관(공공, 민간 등)의 성격과 관계없이 하나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규정의 통일화가 필요함. 또한, 기대효과 부문 (Impact statement)에 Open science 정책을 적용한 점은 학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복잡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통일된 규정 적용의 중요성

- EU집행위원회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을 아우를 수 있는 간소화된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각 분야의 세부 필요사항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2단계 지원(two-stage proposal)

- 2단계 지원은 1단계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에서 선정률이 낮아 고안된 방법임. 일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핵심만을 제출하고, 선정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선정률이 높아진 2차 심사에 더 많은 투자 및 노력을 들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임.
- 또한, 2단계 지원은 좋은 컨소시엄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함.
- 2단계 지원은 과제 지원을 위한 투자시간 및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도 반기는 제도임.

○ Lump sum project

- Lumps sum project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Horizon2020부터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 (11개 시범 시행)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연구자가 제한이나 평가 없이 주어진 사업비를 연구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이 밖에, 단위원가, 개인비용 등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으며 Horizon Europe에도 적용될 예정임.

○ 향후 EU 프로그램 절차 간소화 및 시너지 효과 강화 방안

-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Horizon 2020 프로그램 및 후속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절차 간소화, 통합 시너지 창출 등의 주요 방향을 유지하는 것임.
- 아울러, EU 프로그램 간의 공동연구, 통합재정지원 강화 등이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음.

○ EU 프로그램 참여 강화 방안

- EU프로그램 복잡성은 오랫동안 참가자들에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간소화된 절차 등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또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의 공개 및 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성과활용도 제고 및 시민참여 장려가 필요함.

New opportunities to leverage R&I funding and maximize impact (9.23. 16:00~17:00)

□ **발표자**

- 발표자 1) Anna PANAGOPOULOU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공동지원센터 센터장)
- 발표자 2) Andreja Kutnar (목재과학및기술협회(SWST) 대표)
- 발표자 3) Magda De Carli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유럽연구영역과 국가 정보단 단장)
- 발표자 4) Nicola De Michelis (EU집행위원회 지역 및 도시개발 정책 총국, 남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프로그램 실행국 국장)
- 발표자 5) Stavroula Poulou (그리스 개발투자부 화공학자)
- 발표자 6) Karl Soukup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 국가지원국 국장)

□ **주요 내용**

○ **배경 및 목적**

-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연구혁신 전분야에 걸쳐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개별 연구자 지원을 위한 MSCA와 ERC등의 프로그램은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연구비 삭감으로 우수 연구자 지원 정책 및 연구 인프라 스트럭처가 발달한 서유럽에 비해 남동부 유럽과 같은 저개발 지역의 연구자들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역간 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됨. 이에 유럽 집행위에서는 기존의 다른 기금과 공조하여 우수 기초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활용 가능 기금**

- 유럽 구조 및 투자기금 중 특히 아래 두 가지 기금 활용을 검토 중임.
 - ① 유럽지역발전 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s)
 - ② 결속 기금(Cohesion fund)

○ **기금 활용의 장애요인**

- Horizon Europe의 예산과 달리 유럽지역발전 기금과 결속기금은 국가 및 지역

정부가 함께 관여하고 있으므로 운영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법률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결속기금의 경우 Public-Private 분야를 위한 지원기금 또한 현저히 부족한 상황, 기금을 전이하여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합병시키는 방안도 해결 과제로 남아있음.
- 유럽집행위는 Horizon Europe과 연계한 기금 활용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여 지역 정부와 회원국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함.

○ 활용 방안

- 우수제안서로 인정받았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연구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역발전기금 및 지방정부와 관련된 기금 등 대체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EU 회원국들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예산증액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연구비 양도³⁾와 같은 제도 활용할 수 있음.

○ 결론

- Horizon Europe과 기존 기금의 공조를 위하여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공공지원 실행 법규 등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국가 레벨에서 regulation base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향후 국가 레벨뿐 아니라 여러 레벨의 다양한 community(지방정부, 이해관계자 등)와 지속적인 논의 및 기금 공조에 대한 이전 경험 활용,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연구혁신 기금 공조의 극대화를 아래와 같이 도모할 예정임.
 - 우수제안서로 인증받은 ERC (특히 Proof of Concept) 및 MSC 프로그램 지원
 - teaming project 및 Widening 프로그램 지속 지원
 - Horizon Europe내 사업에 회원국 투자 유도를 위한 Co-fund 조성
 - 유럽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노력 등

3) 자발적 연구비 양도는 지역발전기금의 수혜를 받는 회원국들이 최대 5%까지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예산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이양할 수 있는 제도로 MSCA와 ERC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VII

HUB 7 : INTERNATIONAL COOPERATION

R&I GEOPOLITICAL OUTREACH through association (09.22. 14:00~14:45)

□ 발표자

- 발표자 1) Sanja DAMJANOVIC (몬테네그로 과학부 총리)
- 발표자 2) Hasan MADDA (TUBITAK 대표)
- 발표자 3) Mikheil CHKHENKELL, (조자아 과학문화체육부 장관)
- 발표자 4) Daniel DUFOUR (캐나다 혁신부 과학경제개발국)

□ 주요 내용

○ 준회원국 몬테네그로 성과

- 90년대 발칸반도 지역의 과학기술활동 저조로 두뇌유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큼.
- 준회원국 지위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확대를 방지하고 몬테네그로는 유럽의 스마트특별전략을 적용하는 첫 번째 후보가 됨.
- 몬테네그로는 지역 그린에너지 허브가 되고 있으며 이태리와 해저 전기라인 연결 및 풍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유럽 기후중립지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준회원국 터키 성과

- 유럽 연구혁신정책의 도움으로 터키 연구개발시스템의 모멘텀 확보와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터키 생태계 적응으로 11차 개발계획(2019-2023)이 터키 가치와 기대를 위한 기초 로드맵 역할을 함.
- 유럽과 터키의 협력으로 ERA 결합과 연구혁신 프로그램 참여로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설계 모델과 성과지향 프로세스를 구축했음 (새로운 전략적 접근).

※ 준회원국으로서 1,063개 연구기관 참여, 731개 과제 수행(약 256백만 유로 펀딩)

○ 준회원국 조지아 성과

- Horizon 2020은 많은 펀딩 기회와 모든 과학적 영역(연구역량, 과학적 잠재력, 혁신적 협력주도 기업가 문화 함양)에서 연구기관의 과학적 연구의 질 향상을 유도함.
- 유럽 고급 연구혁신 전문성의 도움으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진단, PSF(Policy Support Facility)를 통해 많은 도전에 대한 지도, 우수 연구자들과 모든 단계의 연구경력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

※ 대학 치료센터 운영은 첨단 질병 치료와 현대의학 및 핵물리 분야 연구의 기반

○ **준회원국 후보 캐나다 입장**

- 캐나다는 다원적인 연구혁신지원 시스템을 가지며, 협력 가치는 연구 수월성, IP 강화, 재능과 다양성 증가 그리고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도전 대응을 포함함.
- 유사한 과학 관심분야, 그린, 지속가능성, 사회 신뢰 등의 가치를 유럽과 공유하고 이를 Horizon Europe을 통해 구현하기를 희망함.
- ※ 상호이해와 연구 강화를 위해 양자(Quantum) 등 주제의 Joint Call 논의 중

Global challenges need global response: starting from COVID-19 (09.23. 14:00~14:45)

□ **발표자**

- 사회자) Maria Cristina RUSSO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국제협력국 국장)
- 발표자 1) Sethuraman PANCHANATHAN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사장)
- 발표자 2) Michael MAKANGA (유럽연합 산하 임상개발 지원 기구(EDCTP)사무국장)
- 발표자 3) Stefania GIANNINI (유네스코(UNESCO) 교육부 부장)

□ **주요 내용**

○ **Sethuraman Panchanathan (미국국립과학재단)**

- 현재 과학기술은 치료제, 백신, 진단 등의 분야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중요하며, 미국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원함.
- 예를 들면,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의 연구진은 2009년에 슈퍼컴퓨터 모델링 연구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빠르게 모델링 기법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하여 많은 결과를 도출함.
- 디지털 인프라로 실시간 글로벌 협력이 쉬워졌으며, 감염병 이외의 분야에서도 국제협력은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함.
- 과학기술혁신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감염병 치료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임을 강조.

○ **Michael Makanga (유럽연합 산하 임상개발 지원 기구, EDCTP)**

- 유럽집행위에서 지원하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글로벌 임상연구 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고, 연구 프로토콜 및 과학 기술 리더십을 확보함.

- 이런 인프라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약물 반응연구를 아프리카 지역별로 비교 연구하여 지역별로 최적의 치료방법이 가능함.
- 향후에는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미래의 질병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임.
- 장기적 안목의 연구비 투자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중요한 키워드임을 강조.

○ **Stefania Giannini (유네스코)**

- 팬데믹 이후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유네스코에서는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
- 유네스코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 단절을 막기위해 세계교육연합(Global Education Coalition) 설립하여 원격 학습을 지원함.

VIII

HUB 10 : EUROPEAN RESEARCH COUNCIL

Frontier research to fight COVID-19 (09.22. 16:00~16:45)

□ **발표자**

- 사회자) Magdalena Skipper (네이처(nature)지의 편집위원장)
- 발표자 1) Balpreet Ahluwalia SINGH (노르웨이 UiT대학교 광학 분야 교수)
- 발표자 2) Sunetra GUPTA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이론 역학 분야 교수)
- 발표자 3) Vincenzo CERULLO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교수)
- 발표자 4) Meike BARTELS (네덜란드 Vrije 대학교 유전학과 웰빙 연구 분야 교수)

□ **주요 내용**

○ **Balpreet Ahluwalia Singh (노르웨이 UiT대학교)**

- 바이러스 입자는 작아서 일반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이 되지 않으며, 고해상도 광학현미경은 고가의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광학현미경에 photonic chip을 결합하여 해상도와 가격의 문제를 극복함.
-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이를 레이저 프린터로 더 개량하여 모바일 렌즈 사용이 가능한 기기로 발전시킴.
- 가격도 1,000달러 수준으로 제조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기초연구, 휴대용 장치, 임상 등)로 응용이 가능함.

○ **Gupta Sunetra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 병원체 진화와 관련하여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백신개발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함.
- ※ 인플루엔자의 항원변이 모델(antigenic drift model)을 통해 다양한 균주에 적용이 가능 인 플루엔자 백신개발(universal influenza vaccine)을 진행함.
- 이런 모델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응용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컨소시엄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Vincenzo Cerullo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 바이러스를 매개체(vehicle)하여 항종양 면역반응(anti-tumor immune response)을 유도하는 암 면역학 연구를 진행함.

※ 아데노바이러스에 종양특이성항원(tumor specific antigen)을 결합하여 인체에 주입 시 면역반응이 빠른 시간내에 나타나며,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 이외에 항종양 면역반응도 유도됨.

- 바이러스 매개 항종양 면역반응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응용하여 비임상에서 유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됨.
-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회사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여 코로나-19의 타겟 정보를 제공
- 생명공학 기술(바이러스와 스파이크 단백질 결합)을 적용하여 만든 백신에 의해서 유도된 면역의 경우 자연면역에 비해서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

○ Meike Bartels (네덜란드 Vrije 대학교)

- 유전적 변이와 웰빙(well being)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며,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하여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15~20%의 사람들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웰빙이 증가함.
- 유럽에서 25년간 축적된 유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진행 중임.

ERC of the future: Creating GIANT LEAPS FOR MANKIND (09.24. 9:30-10:15)

□ 발표자

- 발표자 1) Olsen Rune Dag (베르겐 대학교 총장)
- 발표자 2) Jean Pierre BOURGUIGNON (ERC 이사장)
- 발표자 3) Maria BLASCO (스페인 암 연구 센터 센터장)
- 발표자 4) Frede BLAABJERG (덴마크 연구혁신위원회 회장)
- 발표자 5) Karin ROELOFS (ERC 지원연구자 협회 부회장)
- 발표자 6) Axel CLEEREMANS (ERC 지원연구자 협회 회장)

□ 주요 내용

○ 기초연구의 의의

- 전 지구적 과제 해결 및 산업 리더십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기초연구는 이를 위한 기반을 형성함.
- 기초연구는 유럽의 “면역 체계”로서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들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ERC의 역할

- ERC는 지금까지 기초연구지원을 통해 높은 성과를 창출해왔음. ERC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000명의 연구자들이 지원을 받았음. 논문 인용 횟수 상위 1% 연구들의 대부분이 ERC 지원을 받았으며, 노벨상을 수상한 7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였고, 약 2000개의 특허 출원에 기여하였음.
- ERC는 고위험 고성과(High risk-high return) 프로젝트들의 지원을 중요시 하며 지원과제 평가 시에도 이 부분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됨.
- 남부 유럽의 경우 정부의 기초연구투자는 매우 약함. 이에 따라 ERC의 기초연구지원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특별히 큰 의의를 가짐.

○ ERC의 향후 과제

-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드러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정치 환경은 기초연구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R&I 분야의 관계자 및 대중들이 이해해야만 이러한 정치적 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관계자, 대중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 ERC는 해당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ERC 지원연구자 협회(Association of ERC grantees)는 유럽 기초연구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며, 이 커뮤니티는 연구 시너지를 형성하고 정책 싱크탱크로 기능할 것임.